

# ‘9시 등교’ 사교육비 年1조5000억 아낀다

### 새정치 박주선 의원 분석 의뢰

### 650만 학생 사교육 1시간 감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사교육비가 연간 1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고, 전북·광주·제주교육청은 9시 등교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일선 학교가 등교시간을 모두 9시로 변경할 경우 사교육비용이 연간 1조4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학원 수강 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829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계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등교시간 변경으로 사교육을 하루 1시간을 줄인다고 가정된 결과다. 2013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은 총 648만1000명으로, 이 중 1일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16%(103만 696명)에 달하는 통계를 감안해 계산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약 18조6000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생이 23만 2000원, 중학생이 26만7000원, 고등학생은 22만3000원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011년 청소년의 1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시간 2분으로, 전체 학생

의 약 16%가 1일 평균 3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예상됐다. 박주선 의원은 “전문학적인 사교육비용 때문에 가계는 쪼들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다”면서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밝혀진 만큼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종교의 성직자만 인간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시인이나 소설가들도 인간의 구원을 가르친다. 타고르의 ‘기탄잘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톨스토이의 ‘부활’, 괴테의 ‘파우스트’, 존 스타인벡의 ‘분노는 포도밭’, 생텍쥐베리의 소설들과 동화 ‘어린왕자’를 읽어 보면 안다. 작가들은 동시와 타자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 번뇌하고 고민하고 참회한다. 인간은 동물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교육·예술을 통해 그 탐욕을 선의지로 바꾸어 주려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탐욕과 그것을 선의지로 바꾸려는 의지의 싸움의 역사이다. 신에 대하여 잘 아는 자가 탐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 경전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속에 신성이 들어 있음을 드러내려 하고,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많은 신도들을 거느린 사교의 교주가 된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하고, 그리하여 어느 날 결국은 추락하게 된다. 흔히 절대자의 존재를 입에 담고 사는 탐욕을 가진 자는 석가모니나 예수나 마호메트의 흉내를 내면서, 신의 권능을 이용하여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신처럼 숭앙받으며 산 남자를 목격했다. 그는 경전은 물론,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음을 뽐내고 몸을 단련하여 하늘을 날아 보이고, 벽돌이나 나무편자를 격파했다. 그는 한 무리의 신도들을 쥐락펴락했다.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들의 헌금을 모아 사업체들을 만들어 그것을 휘하의 친자에게 분양하듯이 주어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아 쟁쟁고 그 돈으로 정치인들을 농단했다. 모든 사업체를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차명 사업체로 했다. 자기는 마치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부터 벗어난 초월자처럼 그 무리가 조성한 숲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고급 사 진기로 노루나 꽃이나 구름과 하늘을 촬영하고, 프랑스의 미술관에 많은 돈

## 문학작품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르친다

우리들에게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구원을 말하고, 자기를 통해 구원을 얻으라고 설교하는데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신은 상통하달,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에서든지 존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진 완벽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救援)한다는 것이고,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하고, 정신적인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그 영원한 정신적인 안식을 얻는 곳은 천국이거나 극락이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현세의 인간적인 삶은 오직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 준비 단계의 삶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절에 헌금을 한다. 탐욕을 가진 자들은 창공을 날아다니려 한다. 날개를 퍼서 바람을 내리칠 때는 날아오르지만 그 날개를 다시 치려고 들어올릴 때는 몸이 추락한다. 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거듭 힘껏 날개를 쳐야 한다. 탐욕이란 것도 성장한다. 탐욕의 무게는 탐욕의 성장과 정비례하여 비대해지기 마련이다. 탐욕을 가진 자가 늙어지면 그 비대해진 몸을 감당하지 못

을 기부하고, 그곳에서 사진 전람회를 열고, 그것을 자기가 만든 회사로 하여금 한 장에 몇천만 원 몇 억 원을 주고 사게 했다. 해운업을 하게 했고, 다달이 돈을 구조적으로 착취하여 모든 배들이 부실하게 운항하게 했고, 드디어 침몰하여 무수한 생명을 죽여가게 했다. 예술가인 한 자식은 강남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열고 거기에서 상류층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살아가는 권을 위하여 이용했다. 다른 자식들은 몇백 억씩의 돈을 들고 미국과 프랑스에 나가 비싼 주택을 마련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이기도 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는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파멸되었다. 구원이란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탐욕을 버리는 마음에 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났고,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한 줌 흙이 되는 것이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해탈(解脫)한다는 것,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즉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데로 임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 이정현 ‘산집법’ 개정안 발의

### 비제조업체 건축규제 완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30일 산업단지 내에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집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에 사업건축물을 세울 경우 제조업은 업종별로 3~20%의 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비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40%의 단일면적률(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토지이용 형태와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최대 기준공장면적률 20%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남의 K산업단지에서 컨테이너 보관·운송업을 영위하는 H사는 업종의 성격상 화물의 아적을 위해 타사업장에 비해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다른 비제조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40%의 높은 기준면적률을 적용받고 있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 전남도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수도권 국내 여행사, 중화·동남아여행사 대표, 여행작가, 여행전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수도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 새정치 주승용 “담뱃값 2000원 인상하면 연간 세수 5조원 증가”

### 정부 예상보다 2조원 많아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연간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는 5조456억원만큼 증가하

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발표보다 2조 2456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처럼 세수 증가액 전망치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만 단순 계산해 담배 수요가 종전보다 34%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 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

해 담배 수요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가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 4600억원, 담배소비세가 7500억원, 부가가치세가 4600억원, 지방교육세가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이 6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정부가 61%에 해당하는 3조 724억원을 가져가는 반면, 지자체 배분은

39%(1조9733억원)에 그쳤다. 또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3년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0.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면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농막·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 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나트 복합치료
- ② 에드를레이저: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엔이저: 쉐닝맥스, 다이오우드제로
-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랙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세나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중
- ⑦ 비인: 네오모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itic.co.kr  
[문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